

'맑고 향기로운' 스님들의 노래 이야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창립 10주년 음악회
생명·환경 이야기 등 다채 ... 내일 광주문예회관

스님들이 펼쳐내는 '맑고 향기로운 노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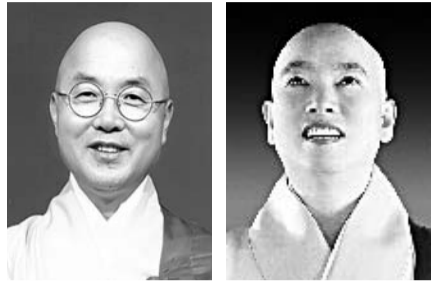
정목스님, 정물스님 등 노래하는 스님들이 한무대에서 만나는 행사가 마르는데 눈길을 끈다.

생명평화를 애호하는 불교 NGO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불교환경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 오는 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노래뿐 아니라 생명과 환경 이야기, 어린이연희단의 108울동, 합창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러진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노래하는 스님들이 참석해 불교음악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회는 해남 미항사 주지인 금강 스님(BBS 광주불교방송 본부장)이 맡는다.

첫 번째 무대는 불교명상음악가인 정물스님이 '천의손 천의눈', '해탈'을 부른다. 스님은 지금까지 대만, 중국, 캐나다, 방콕, 미국 등에서 1000여회 이상 음악회 연주를 했으며 노래뿐만 아니라 '노래로 하는 기도'의 2장을 출판한 바 있다.

다음으로 불교환경연대 10년 활동동영상과 축하메시지가 발표되며 정목스님의 생명과 환경 이야기가 펼쳐진다. 금강 스님과 대담에서 정목스님은 평소 생각해



금강스님 정물스님

왔던 환경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1990년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첫 비구니 MC'로 활동했던 정목스님은 현재 FM '마음으로 듣는 음악'을 진행 중이며 1995년부터는 아픈 어린이 돕기 운동 '작은 사랑'을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어린이 중창단 15명으로 구성된 무지개선율은 '빛고를 염불나라', '지구를 내손으로 부른다'. 또한 어린이울동단 40명으로 구성된 나무숲어린이연희단은 108울동을 선보인다.

이어서 불교명상 음악가이자 '그대를 위한 시'를 출판했던 심진스님은 '사는 일 눈물 나면', '무소의 뿔처럼'을 부르고 국악 가요 음반 등 5장을 출판했던 도신스님(서광사 주지)은 '무상', '묵택사'를 선보일



어린이 중창단 '무지개선율'의 공연 모습.

다. 한마음선원합창단과 빛고을콰이어합창단은 각각 '꽃을 바치나이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로 초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불교환경연대 임원단 인사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아미타불 나의님'을 합창하는 것으로 행사는 막을 내린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2008년 4월 19일 창립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불교환경운동, 불교의 사회참여, 시민단체와

의 연대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연중 진행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길러주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관계자는 "이번 '맑고 향기로운 노래이야기'는 창립 10돌을 기념해 마련했다"며 "환경과 생명평화의 가치와 정신을 이웃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불교의 사회참여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의 010-3616-882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현대詩 100년 '그대 가슴에 흐르는 시' '시산맥' 시인회 회장 김필영 출간

현대시 100년 시간이 담긴 96편의 시와 감상평을 담은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영광 출신으로 계간 '시산맥' 시인회 회장과 계간 스토리문학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김필영 시인은 최근 '그대 가슴에 흐르는 시' (박복)을 펴냈다.



96편의 시는 1920년에서 2018년에 이르는 약 100년에 걸쳐 쓰인 시들로 우리 현대시의 흐름을 개괄할 수 있는 대표 작품이다.

'진달래꽃' (김소월), '알 수 없어요' (한용운), '길' (윤동주), '시선을 가리는 노래' (정현중), '지금 내가 가진 것' (강은교) 등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이밖에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인들의 작품도 포함돼 있다. '뿌리로부터' (나희덕),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문태준), '점화(點話)' (문정영), '연어' (한경용), '조롱박' (진혜진)은 오늘의 한국 현대시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시를 선정한 기준은 시적 가치와 함께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에 역점을 뒀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며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 위주로 선별을 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시를 소개한 다음 시에 대한 평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쉽고 간결하게

풀어낸다. 무엇보다 교과서적 분석을 탈피해 시 자체가 지닌 공감과 위로의 힘을 느끼도록 배려했다.

저자는 "난해한 시가 난무하는 시대에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시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시대의 이념의 틀을 넘어 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인의 신분, 학력, 사상, 종교 등을 초월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그대 가슴에 흐르는 시' 출판기념회가 오는 7월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저자의 대표시 낭송, 한국현대시 낭송, 판소리 한마당, 해금 연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문의 010-3759-811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차르트처럼 주사위로 작곡해 볼까 광주여성필, 어린이·교사 위한 연주회 내일 광산문예회관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는 어린이와 교사를 위한 특별음악회 '주사위음악&피터와 늑대'로 제 48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6일 오전 10시 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

이번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광산구청이 후원하는 2018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또다시 선정돼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와 교사들을 위한 특별음악회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모차르트가 주사위를 굴러 미뉴에트를 작곡한 방법인 주사위음악으로 작곡을 해보고 초연하는 음악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동화극 프로그램인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를 영상과 함께 연주한다.

정월태(유니버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씨가 지휘자로 등장하며 총감독은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김유정 대표가 맡았다.

주사위음악에 앞서 첫곡 프로그램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 OST를 연주한다. 공연티켓은 전원의 행복 프로그램으로 전석 1000원이다.

문의 062-960-8989, 010-3625-511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계간지 '창' 여름호 나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이 발행하는 계간 문화담론지 '창' 여름호(통권42호)가 나왔다.

이번호 '특집 기획'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전남이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과 조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교필 새문화정책 준비단 자율성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담고 있다.

또 '6·13지방선거문화정책연대의 민선 7기 문화정책의 방향과 10대 핵심 정책 제안' (윤준혁 ㈜엘리파이트 대표)과 '현장에서 바라본 지방정부 문화정책 혁신' (임인자 소년에서 대표, 독립기획사) 등 지역문화단체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문화인 탐구생활'에서는 서용자 전남대 독문과 교수가 소설가로 변신한 이야기를 담았으며 '호남의 현판 주연 이야기' 기획연재는 '그림자도 쉬어가는 곳 식영정'을 다뤘다.

'문화청년그룹'에서는 '오월길문화기획단 달_comm'의 김꽃비 대표가 광주의 오월을 걷는 새로운 방법에 다양한 생각과 모임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 지훈 2018세계청년축제 총감독을 만나 준비상황과 축제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창'은 재단홈페이지(www.rcfef.or.kr)에서 원문을 볼 수 있으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민족 서사시 ... 섬집 아기 ... 선구자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13일 방울소리공연장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가 13일 오후 7시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에서 111회 가곡부르기 공연을 연다.

이달의 배우는 노래는 이소선 시에 김성훈이 곡을 붙인 '한민족 서사시'다. 주제는 제목과 같은 '한민족 서사시'다.

다 함께 부르는 추억의 노래로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누구나 부르는 동요 '섬집 아기'를 시작으로 귀에 익숙한 '산길', '선구자', '봉숭아'를 준비했다.

정다운 노래는 김성훈 작곡가의 노래 '봄비 내리는 날'과 '아카시아 향기 사이로'를, 사랑의 노래로는 '청산에 살리라', '내 마음'을 부른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초청 작곡가 김성훈광주음악협회의 작품 3곡을 집중 조명하며 테너 박관희(사진)를 초청해 '가고파', '바람이 불어'를 연주한다.

특별초청연주로는 빛고을시니어앙상블(지휘 이상화)이 출연하고 꿈나무 연주무대에는 민들레 kinder 중창단이 오른다.

회원연주로는 기라성 같은 아마추어 연주자인 박종, 서애숙, 기세관, 김운정, 고재경, 김영수, 남신, 김영미씨 등이 참여하고 시낭송은 낭송가 박성애 시인이 '차를 마삼'을 낭송한다. 문의 010-2694-4592, 010-2665-232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7월호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올여름 당신의 여행은?
당신의 여행은?
당신의 여행은?
당신의 여행은?

문화 여행 제주도 개성있는 독립책방들 이제 '책방 올레'다

문양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① '시인의 마을' 질마재에서 만난 서정주 시인

예향이 만난 이사람
광주시립극단 2대 예술감독 나상만
황금사자기 우승의 주역 광주일보 김창평

전시 리뷰
광주시립미술관
2018 민중·인권·평화 <세계 민중 판화>전

특집
올여름 당신의 여행은?

'나만의 방법' 찾으면 더 행복해지는 여행
무더위엔 역시 '복캉스' 청춘들의 여행법

여행의 짜릿함, 문화의 즐거움 모두 강진
가우도 점트랙 타고 자연 만끽

미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⑤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미국을, 그리고 세계를 점령했나?

노중훈의 꿈의 여행 ②
티없이 맑은 자연 스위스 루체른 & 루가노

정운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④
코미디의 두 대가 버스터 키튼 vs. 찰리 채플린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⑥
독특한 컨셉으로 사랑받는 도쿄 모리오카 서점

ACC 시네마테크에서 만난 미디어아티스트 박찬경 영화감독 박찬욱 형제

에향 초대석
나남출판·수목원 회장 조상호
"책 만들고 나무 심는 마음 똑같아요"

문화 피플
삶과 예술의 감회담아 15년 만에 부부전 '동행' 가진 화가 최영훈·조각가 손연자 부부

ACC 시네마테크에서 만난 미디어아티스트 박찬경 영화감독 박찬욱 형제